

서부권

1000억 투입 국립 생물자원관
목포 남항매립지에 건립

지난 9월 목포 유치가 확정된 '호남 국립 생물자원관'(국립 도서연안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 목포 남항매립지에 건립될 전망이다.

협의를 가졌으며, 오는 2011년 매립이 완료되는 남항매립지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다.



진돗개 4마리 LA 경찰견 명 받았습니다

성할 진돗개 4마리를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감아지는 3개월 미만의 수컷 3마리와 암컷 1마리로 '대한·민국·통일·브로드'로 이름이 정해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경찰견 훈련부서 책임자 2명이 27일 진도군을 방문해 경찰견으로 육성할 진돗개 4마리를 선발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당장 장영식) 직원들이 27일 목포시 영해동에 위치한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점식배식을 돕고 있다.

목포시, 글로벌 인재육성 박차

시, 1164억 투입 교육발전 2차 5개년 계획 추진

목포시가 교육 경쟁력강화와 글로벌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제2차 5개년 계획'(2012~2016년) 수립에 나선다.

전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용역에는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 및 평가 ▲설문·면담·현지 확인 등 주민역구 및 평가자료 작성 ▲교육지원 사업 지원유형별 평가 ▲목포교육발전 로드맵 제시 등을 담게 된다.

에 640억3500만원 ▲과학·문화예술 및 시설개선 지원 21개 사업 306억 6700만원에 이른다.

1차 5개년계획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고교 수능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억50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5000만 원 ▲고교 학력증진사업 지원 5억원 ▲우수 중3 시내고교 유치 및 대학진학 장학금 지급 8억5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우수 중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2011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학재학 기간동안 장학금이 지급된다"며 "차질없는 5개년 계획 추진으로 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영광군, 4000만 달러 투자유치

중 2개 기업과 관광개발·식품 유통사업 협약

영광군이 대형 숙박 기업과 식품 가공 유통 회사 등 중국 2개 기업과 4000만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회사 공사'와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숙박 및 관광 개발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성사되면 전남지역은 물론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더러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엔 영광군과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한 상하이 '일배 투자관리 유한회사'는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 및 유통 사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유치단을 이끈 최장주 영광부군수는 "중국 기업인들이 영광군의 투자 여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정기적 교류가 이뤄진다면 전기 자동차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조만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김양식장 황폐화 조사

해남군, 고천암일대 5000ha

해남군이 해남 수산기술사무소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등과 함께 고천암 하류지역 김양식장 황폐화(본보 10월 25일자 10면) 원인조사에 나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고천암 하류지역인 송지면 학거리와 내장리, 우근리를 비롯해 현산, 화산, 황산면 등 4개면 3000ha와 진도지역 2000ha 등 모두 5000ha에 이르는 김양식장의 김 염척이 누렇게 변해 수확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피해해역 바닷물과 김 염척을 수거해 목포 해조류연구소 등에 보내어 해남 수산기술사무소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등과 28일 사고 해역에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해남지역 김양식 어민들은 수확을 앞둔 김이 누렇게 변한 것은 '고천암 담수호 방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기산 김 외에도 일반 김염척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10여일 소요될 전문가 조사결과가 나오면 황색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진도군-중어업단 협약

해삼·전복 등 수산물 산업화

진도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삼·전복·꽃 등 수산물 산업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구한다.

진도군은 27~29일 3일간 중국 대련 장자도어업단 유한공사 총재단 방문단 9명이 진도를 방문해 진도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방문단은 해삼·전복·가리비 등 해양생태 및 적지 환경조사를 통한 중국자본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실무부서와 수산물 관련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한 후 오는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동진 군수는 "차 상품으로만 판매하던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랴오닝성에 위치한 대련 장자도어업단 유한공사는 어패류와 해삼·전복·소라 등을 가공, 미국·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진도에 가면 제철 꽃게 맛본다

29~31일 서망항서 '꽃게 축제'

'살이 통통 오른 제철 꽃게 맛에 흠뻑 빠져볼까?' 본격적인 꽃게잡이철을 맞아 '제1회 진도 꽃게축제'가 오는 29~31일 3일 동안 진도 서망항에서 개최된다.

꽃게 감쪽경매를 비롯해 꽃게 요리전시·무료 시식회·꽃게 페이스페인팅 등 진도꽃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진도군 관계자는 "꽃게 예호가들이 가장 즐겨먹는 철을 맞아 꽃게를 맛볼 수 있도록 축제를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도군 서망항에는 하루 평균 30여척의 꽃게잡이 통발어선들이 척당 300~500kg의 꽃게를 신고 오고 매일 10여을 위판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listings for '공장매매' (factory sale), '호남랜드공인중개사' (Hannamland Real Estate), '믿음 공인중개사' (Trust Real Estate), '신진공인중개사' (New Real Estate), and '금당 공인중개사' (Gim-dang Real Estate). Each listing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contact information.